

# ‘스피드 신성’ 김민석이 해냈다… 사상 첫 1500m 동메달

18세 스케이터 생애 첫 올림픽무대 1분44초93… 은메달과 0.07초 차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서 괴물이 나왔다. 10대 스케이터인 김민석(18·평촌고) 선수가 남자 빙속 1500m에서 ‘깜짝 동메달’을 따냈다. 아시아 최조다. 김민석은 13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강릉 오벌)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1500m 결선에서 1분44초93을 기록하며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키엘트나위스(네덜란드), 파트릭 루스트(네덜란드)에 이어 3위다.

이날 첫 올림픽 무대에 나선 김민석은 총 35명이 출전한 남자 1500m 15조에서 레이스를 펼쳤다. 인코스에 뒀던 김민석은 300m 구간을 중위권인 23.94초에 통과한 후 700m까지 49초64를 기록하며 5위로 달렸다. 이어 1100m까지 1분16초45를 찍으며 2위까지 올라섰고, 막판에 스피트를 울리며 중간 3위까지 올라섰다. 개인 최고 기록(1분43초49)보다 0.44초 늦었으나 성공적인 데뷔전이다. 김민석은 2016 릴레함메르 유스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1분51초35로 우승을 차지했으며, 지난해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도 깜짝 금메달을 따내며 2관

왕에 오른 바 있다. 여기에 동계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따내며 스탠 탄생을 알렸다. 동계올림픽 빙속 남자 1500m에서 메달을 딴 선수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도 김민석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괄윤기(고양시청)-김도겸(스포츠포토)-임효준(한국체대)-황대현(부흥고)이 호흡을 맞춘 한국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남자 계주 5000m 예선 2조 경기에서 6분34초510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13일 오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에 출전한 김민석이 동메달이 확정되자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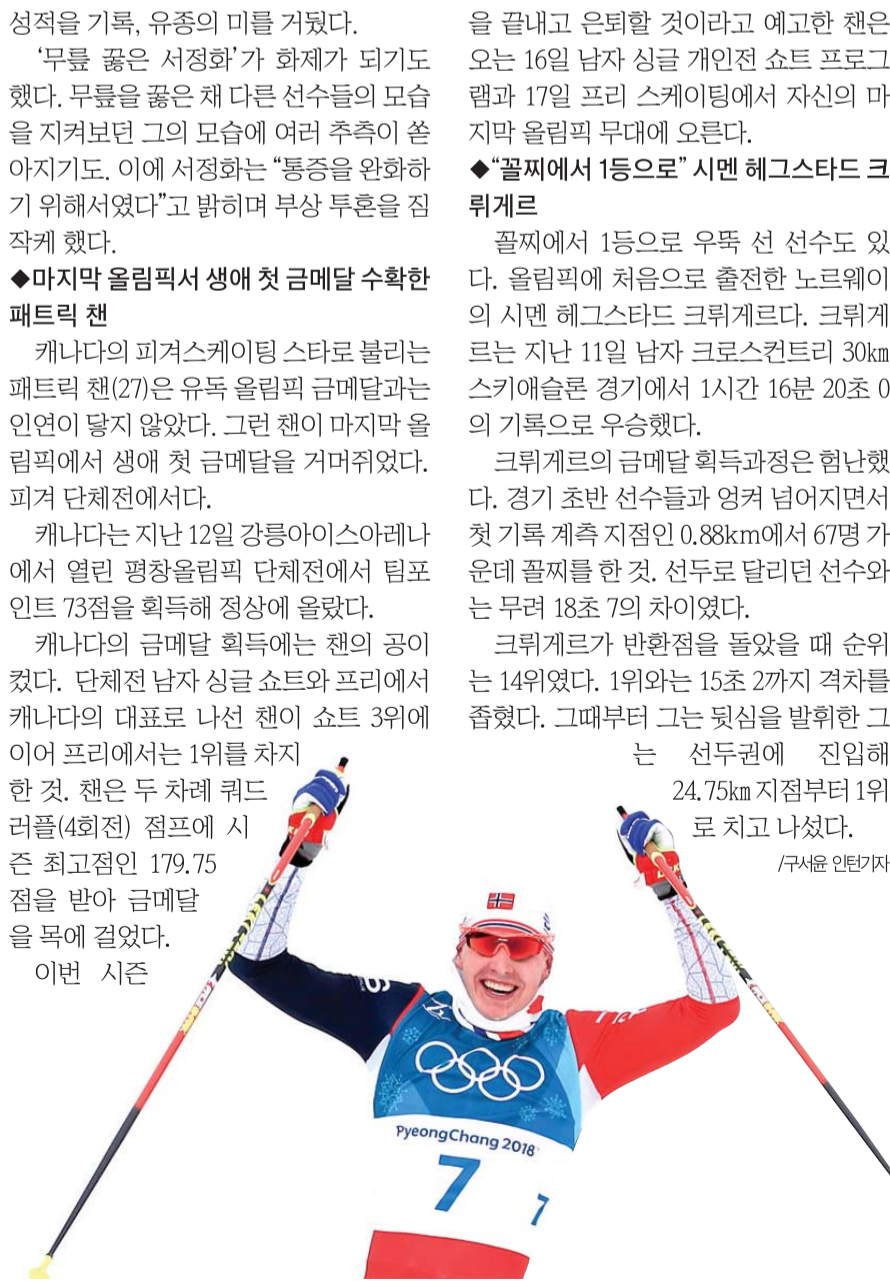
## 짜릿·몽클… 각본없는 ‘평창드라마’ 전 세계인 이목 집중! 놓치지 마세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경기는 보는 것만으로 가슴을 짜릿하게 만들곤 한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가장 짜릿한 말은 ‘각본 없는 드라마’가 아닐까.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펼쳐진 ‘평창 드라마’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韓 여자 모굴 사상 첫 결선 진출 서정화** 서정화는 경기도 힘든 상태에서 경기에서 한국 최초의 기록을 쓴 주역이다. 평창올림픽 개최를 고작 이틀 앞두고 넘어진 서정화는 오른쪽 골반을 다친 채로 지난 9일 모굴 1차 예선에 나섰다. 그러나 점프 직전 넘어지며 30명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포기할 법도 했다. 그러나 서정화는 ‘진통제 투혼’을 감행하며 2차 예선에 나섰고, 결국 20명 중 6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한국 여자 모굴 사상 최조다. 아쉽게도 지난 11일 열린 1차 결선에서는 72.31점으로 14위에 그쳤지만 12위 선수와 0.92점 차이에 불과했을 정도로 호성적을 기록, 유종의 미를 거뒀다. ‘무릎 꿇은 서정화’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무릎을 꿇은 채 다른 선수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모습에 여러 추축이 쏟아지기도. 이에 서정화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히며 부상 투혼을 짐작케 했다. ◆**마지막 올림픽서 생애 첫 금메달 수확한 패트릭 쉐인** 캐나다의 피겨스케이팅 스타로 불리는 패트릭 쉐인(27)은 유독 올림픽 금메달과는 인연이 닿지 않았다. 그런 쉐인이 마지막 올림픽에서 생애 첫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피겨 단체전에서다. 캐나다는 지난 12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단체전에서 팀포인트 73점을 획득해 정상에 올랐다. 캐나다의 금메달 획득에는 쉐인의 공이 컸다. 단체전 남자 싱글 쇼트와 프리에서 캐나다의 대표로 나선 쉐인이 쇼트 3위에 이어 프리에서는 1위를 차지한 것. 쉐인은 두 차례 퀴드 러플(4회전) 점프에 시즌 최고점인 179.75점을 받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시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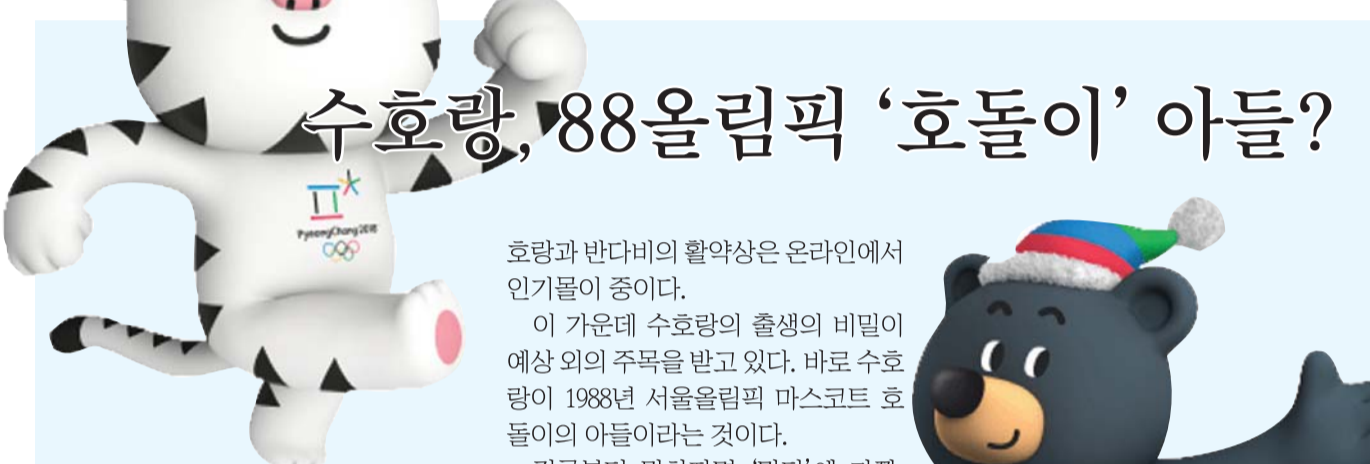


11일 오후 강원 평창군 휘닉스 파크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모굴 예선에서 서정화가 멋진 포즈로 점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끝내고 은퇴할 것이라고 예고한 쉐인은 오는 16일 남자 싱글 개인전 쇼트 프로그램과 17일 프리 스케이팅에서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 무대에 오른다. ◆**‘꿀찌’에서 1등으로 시몬 헤그스타드 크뤼게르** 꿀찌에서 1등으로 우뚝 선 선수도 있다. 올림픽에 처음으로 출전한 노르웨이의 시몬 헤그스타드 크뤼게르다. 크뤼게르는 지난 11일 남자 크로스컨트리 30km 스키애슬론 경기에서 1시간 16분 20초 0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크뤼게르의 금메달 획득과정은 험난했다. 경기 초반 선수들과 영커 넘어지면서 첫 기록 계속 지점인 0.88km에서 67명 가운데 꼴찌를 한 것. 선두로 달리던 선수와는 무려 18초 7의 차이였다. 크뤼게르가 반환점을 돌았을 때 순위는 14위였다. 1위와는 15초 2까지 격차를 좁혔다. 그때부터 그는 뒷심을 발휘한 그는 선두권에 진입해 24.75km 지점부터 1위로 치고 나섰다. /구세윤 인턴기자



## 수호랑, '88올림픽 '호돌이' 아들?



호랑과 반다비의 활약상은 온라인에서 인기몰이 중이다. 이 가운데 수호랑의 출생의 비밀이 예상 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수호랑이 1988년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맞다’에 가깝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서울올림픽과 연계한 디자인이라고 밝혔고, 호돌이의 아버지 김현 작가도 인터뷰를 통해 “수호랑은 호돌이의 아들인 셈”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수호랑과 반다비는 탄생부터 호돌이, 곰두리와 연결돼 있었으니 자손이라 봐도 무방하다. 비록 호돌이는 갈색, 수호랑은 흰색이지만 백호가 ‘신성한 동물’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의문은 쉽게 풀린다. 3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백호를 마스코트로 내세워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그렇다면 왜 호랑이와 곰일까. 이들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문화 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 건국신화에도 등장했을 정도다. 그만큼 한 민족의 정신을 잘 담고 있는 동물인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올림픽 마스코트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귀속돼 있다. 그러나 마스코트를 만든 이들은 미국의 흰머리독수리, 러시아의 곰, 중국의 팬더처럼 호랑이를 한국의 국가 브랜드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데다, 조직위도 호돌이와 수호랑의 스토리텔링을 키워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스포츠 한줄 News

- ▲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 아나스타샤 브리즈갈로바-알렉산드르 크루셀니치키 부부가 노르웨이를 꺾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컬링 믹스더블(혼성 2인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 ▲ 평창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도핑에 적발된 일본 국가대표 사이토 게이가 “결백하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 선수단도 “모든 테스트나 방법 동원해 사이토의 무고함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 ▲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이순신 장군 동상 그림에 이어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그림도 선수들의 장비에서 지우게 할 참이다.
- ▲ KBO가 상벌위원회, 규칙위원회, 육성위원회 등 전문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 ▲ ‘천재 스노보더’ 클로이 김(사진)이 스노보더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획득, 최연소 금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김은 2000년 4월 23일생으로 17세 296일에 올림픽 정상에 올랐다.
- ▲ 미국 출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IOC는 “관련해서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